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이름 | 강_운 |
| 파견국가 | 핀란드 | 파견도시 | JYVASKYLA |
| 파견대학 | JYVASKYLA UNIVERISTY | 파견기간 | 2016.8~2017.5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위바스쿨라 대학은 헬싱키에서 버스로 약 3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학생 도시로 불릴 만큼 대학생들이 많아서 한적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도시입니다. 본교와 교육, 이공계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 아고라 빌딩이 따로 있습니다. 인문계 빌딩은 오래되었지만 디귤 모양의 책상들과 책장들로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고라 빌딩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입니다. 크고 하얀 건물로 일층의 카페테리아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큰 호수가 보여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한국의 한강처럼 앉아서 쉬고 자전거를 타며 호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공강 시간이나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3층으로 1층에 카페테리아와 로비가 있고 2,3층에는 책들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룹 룸, 컴퓨터, 휴식공간이 있고 각 층마다 복사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옆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국제교류처가 2층에 있으며 앞 쪽으로 내려가면 아고라 빌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빌딩이 학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도보로 도시의 중심지와 교회가 있는 공원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L빌딩에서는 스포츠 스티커를 구입하면 모든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
| 2016-2학기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8월에 3주동안 교환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Intensive summer course in academic english)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영어에서 더 나아가 핀란드의 수업 방식과 토론,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후에는 전공인 History와 Ethnology의 과목을</p> |

| | |
|------------------------|---|
| | <p>위주로 들었습니다. Research Methods in history and ethnology 와 Introduction to Finnish history를 들었습니다. 역사 수업은 전반적으로 2분의 교수님이 매주 돌아가며 수업을 하시거나 분기로 나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리서치 수업처럼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핀란드 역사 수업은 흥미가 있어서 신청을 했지만 실망한 수업입니다. 리서치 수업에서의 자유로운 토론분위기의 수업을 기대했었지만 적극적인 수업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두 수업 모두 교수님께서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만 구성을 하고 PDF파일을 주셨기 때문에 따로 책을 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역사와 민족학 전공은 주로 에세이와 토론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없었고 다양한 주제에서 선택해 10page 내외의 에세이를 쓰는 것이 과제였습니다.</p> |
| <p>2017-1학기 수업</p>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지난 학기에 많이 듣지 못한 전공을 더 수강하였습니다. Ethnology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economic history, Review paper for history, political culture 5개의 전공을 수강했습니다. 첫 번째 ethnology 과목은 가장 만족한 수업인데 교수님의 민족학 리서치를 수업으로 들으면서 팀원들과 리서치 플랜을 짜는 수업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한 후 연구원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예산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의 채택을 위한 발표라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친구들을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수업보다 실용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 international relations은 미국의 정치를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 역사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정치를 핀란드 교수님의 관점으로 배웠기 때문에 신선한 수업이었습니다. economic수업은 제가 가장 많은 핀란드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는데 경제학을 비롯한 많은 전공의 친구들과 여러가지 관점에서 경제를 비판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경제학으로 그만큼 영어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수업입니다. Review과목은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수업이 없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논문을 쓰는 과목입니다. 당시 저는 suffragette라는 영국의 여성인권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실 모든 역사학 수업은 글을 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olitical 수업은 정치학 개론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얻을 것이 많았고 굉장히 알찼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이렇게 많은 수업은 없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p> |

| | |
|------------|---|
| 프로그램 운영 |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감히 핀란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도착하기 전에 tutor가 배정되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해야할 일들과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교류처에서 발표를 통해 세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 후부터는 일단 페이스북을 만드시면 대학 학생들이 가입하는 학생단체 페이지에서 매일 새로운 이벤트들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교환학생에 파견하기 전에 접수 신청을 받는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핀란드의 일상을 함께했는데 여름 별장에서의 바비큐 파티, 사우나, 크리스마스 파티, 전통 음식 요리, 베이킹 등을 비롯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또한 정말 가족처럼 신경써주었기 때문에 가끔 기분이 좋지 않거나 몸이 안 좋을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동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제 핀란드 가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서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국제교류처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니 망설이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p>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핀란드의 기후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흑야와 백야 모두 있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었을 겨울에는 그렇게는 춥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25도 정도 였고 그 이 후는 어둡고 눈이 자주 올 뿐 한국의 기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8월은 약 23도정도로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9월까지 가을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10월부터는 흑야가 시작되어 아침 9시가 넘어서 해가 뜨고 오후 3시가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당시에는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저녁을 만들어 함께 있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기분이 안 좋다고 집에만 있는 것은 더욱 몸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나쁜 기분 전환을 하는 요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도 눈이 오는데 점차 해가</p> |

| | |
|----|--|
| | <p>길어지고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하기 좋아집니다. 5월에는 백야가 오는데 오후10시가 넘어서 해가 지는 듯하다가 새벽 3시만 되도 해가 뜹니다. 저는 오히려 흑야 때 항상 어두워 잠이 안 오고 백야 때 더 잘 잔 것 같습니다. 보통 반대라고 합니다. 흑야 때는 비타민D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p> |
| 안전 | <p><i>현지 안전 상황</i></p> <p>한번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문제는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모르겠지만 유럽국가들을 여행하고 오면서 생각한 것도 핀란드가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는데 중심가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 아파트의 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p> |
| 숙소 | <p><i>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살았던 로니마키에 살았습니다. 숙소는 코르테포야, 밀리야비, 로니마키 등 학교에서 도보 25분 정도에 떨어져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르테포야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살고 신축이라 깨끗하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밀리야비와 로니마키는 도보로 10분 떨어져 있으며 오래된 건물이지만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숙소는 빌딩 마다 다르지만 제가 살았던 로니마키는 1~2명의 룸메이트가 배정되어 화장실과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각 자의 방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키를 항상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귀찮은 점이었습니다.</p> |
| 식사 |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카페테리아는 학교 안을 비롯해 승인된 레스토랑에서도 운영 중이며 학생증이 있다면 2.6e에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샐러드와 과일, 주스와 밥이나 감자 종류, 카레, 생선, 고기 등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다 보면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주로 기숙사에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생활비에서 핀란드의 원 재료들이 한국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했기 때문에 돈을 정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즈나 요거트, 바나나, 우유, 계란 등의 재료는 저렴해서 주식으로 먹을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식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출국 : 80만원 대/ 입국 : 50만원 대 | |
| Fees |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 비자 : 40만원 정도 처음 학생회 가입 : 50e 스포츠 스티커 : 55(?)e 서바이벌 키트 : 70e(냄비, 이불, 베개, 포크 등 필요한 용품들을 빌려줌, 나중에 보증금 50e를 돌려받음) |
| 보험료 |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 SIP(Student Insurance Program) 보험 : 392.89e |
| 숙소 | 한 달 : 232.11e | |
| 식비 | 할 달 : 20~30만원 | |
| 교통비 | 처음에 자전거를 50e정도에 second hand 페이스북페이지에서 구입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외 겨울에는 충전하여 사용했습니다. | 현금은 3e 카드를 중심지에서 구입해 등록 시 1.7e 사실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여행을 위해 트래블 센터에 갈 때만 이용했습니다. |
| 책값 | 도서관을 이용하고 교수님들이 항상 PDF파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 |
| 기타1 | 12월(네덜란드,벨기에, 룩셈부르크,독일,핀란드 여행) 2월(영국 여행) 5월(체코,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핀란드 여행) | |
| 합계 | 1300만원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무엇보다 영어공부를 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선불리 공부를 하러 온다고 생각하여 직전에 공부를 게을리하여서 고생을 했습니다. 일단 같이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대부분이 상당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고 교수님도 그 친구들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전공 수업이 어렵게 들리고 영어에 자신감이 없으니 토론과 발표를 할 때도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핀란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상당한 핀란드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교육 시스템 자체가 학생에게 공부를 하고 싶도록 동기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생각하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한 막연한 유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다 버리시고 진실된 자세를 가지신다면 핀란드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인이라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받아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나와 느낀 것은 모든 외국인들이 오픈 마인드와 제대로 된 사상을 가지고 있진 않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스테레오 타입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지 않지만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제가 한국인으로 외국인들과 만나는 자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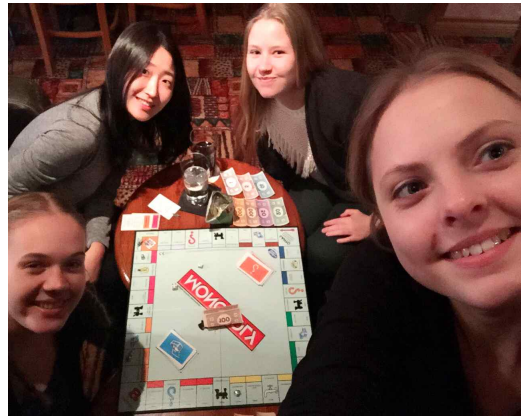
저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핀란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아는 것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비롯한 핀란드의 법까지 책과 다큐멘터리로 접하고 난 뒤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일단 핀란드 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호스트 패밀리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더 쉽게 친해지듯이 핀란드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습관은 여행을 떠날 때도 큰 힘을 발휘했는데 각 나라에서 방문할 지역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가는 것이 제가 한 권의 노트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돌아보는 휴식의 시간을 가진 동시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내가 어떤 기분으로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본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교환학생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 앞 호수



친구들과 카페에서



산타 마을 트리



최북단 여행



호스트 가족들과



아고라 앞 호수